

제 209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2019년 7월 9일(화) 개최 장소 :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호관 8층)】

1. 주식회사 지팡구·페이먼트 대표 張 綜 哲 氏 (<http://zpay.jp/>)



【주소】 도쿄도 다이토구 다이토 1-9-4 마츠우라 빌딩 5층 【설립】 2017년 9월 【자본금】 2,000 천엔 【사업 개요】

<사업 내용·서비스 내용> 당사는 QR 코드를 활용한 주문관리 시스템 「스마츄-*」의 개발·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스마츄를 도입함으로써, 종이 메뉴를 점내의 테이블마다 설치하거나 점원이 순서대로 주문을 받거나 하는 수고를 대폭 절약·효율화할 수 있고, 메뉴 변경도 손쉽게 할 수 있는 IT 서비스입니다. QR 코드로 읽어낸 메뉴는 스마트폰에 표시됩니다. 다언어에 대응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이나 정부가 권장하는 관광 입국 정책에 호응한 음식점에서의 주문 효율화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QR 결제가 보급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QR 코드로 메뉴를 표시·주문하는 메뉴리스 시스템이 실현됨으로써 주문시의 절약화와 효율화 및 다언어화가 가능해져, 음식점 경영을 크게 서포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업전개> 타겟으로서는 체인점, 패스트푸드점, 개인경영 등의 음식점, 관광지 근처(올림픽 경기장 부근)의 음식점, 서서먹는 메일 가게, 노래방 등 국내에 무수히 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일정 규모가 달성된 시점에서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에서 주문, 스마트 오더」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서비스 명

【코멘트】 이 회사의 「스마츄-*」의 성장성은 ① QR 코드가 일반화하고 있음 ② 기존·신규 불문하고 도입 가능 ③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집니다. 점포의 니즈, 문제점을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장래적으로는 단독 주식 상장이나 대기업 QR 결제 회사와의 M&A 를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 글로벌 날리지 합동회사 대표 杉山 良仁 氏 (<https://www.globalkwledge.com/>)



【주소】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마치 5-80 가나가와 중소기업센터 빌딩 7층 【설립】 2018년 5월 【자본금】 5,000 천엔

【사업 개요】 일본 사회의 급속한 노동 인구의 감소는,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고용을 빼앗을 가능성이거나 일본이 이민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어서, 가까운 미래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 지요. 국내에서 390만개가 존재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은 일본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인재부족이 가져오는 생산성 저하, IT 활용의 지연, 후계자 문제 등의 심각한 경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폐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A 나 IoT 등의 IT 활용과 인재 활용(IT 활용 가능한 인력 개발, 육성, 소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원스톱(1개사)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합한 독특한 접근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당사는 현재, 단독으로 컨설팅과 상품판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기획하는 비즈니스를 포함해 IT 서비스나 인재 관련 서비스 등의 중견·대기업과의 제휴에 따른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이 회사에서는 인재 부족이 야기하는 과제를 IT 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① 전문가가 불필요하고 압도적으로 사용이 용이하며 ② 전체 비용이 저렴하고 ③ 실리콘 벨리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일본어 대응 완료)이 특징입니다.

3.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주식회사 대표 平井 道夫 氏 (<https://informationsystems.jp/>)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미아오야마 4-8-15 【설립】 2010년 3월 【자본금】 89,300 천엔

【사업 개요】 일본은 지진국입니다.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266,425 회였습니다. 하루 평균 720 회, 1 시간당 30 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석 연구소는 이 지진 중에서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을 1 주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 내에서 예측하는 것 입니다. 현재 알려진 지진 예측은 30년 이내라는 장기 예측과 흔들리기 수초 전에 발보되는 긴급 지진 소식이 있습니다. 단지 이 예측 태세만으로는 피해 감소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난점입니다. 하여, 단기 지진에 대한 예측을 조합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며칠전이라는 단기간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지진 발생까지 헛되지 않게 준비와 방재 태세 검증을 실시하고, 발생 시 재해의 경감과 그 후 72 시간 생존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2 차 재해의 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적, 물적, 경제활동의 현저한 손실 감소에 기여하여, 보다 빠른 복구, 부흥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진계와 전자기라고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이루어진 관측 시스템과 해석 시스템에 의한 지진 예측입니다. 기상청 「기상 비즈니스 추진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으며, 유엔 방재 세계 회의 Science&Technology Conference 의 멤버입니다. 앞으로는 관측 시스템의 확충과 해석 시스템의 충실을 꾀하여, 보다 높은 예측 정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지진 예측 연구가 급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의 지진 예측의 De facto 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에 SDGs 를 추진해, 재해 리스크의 경감을 실현시켜 국제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코멘트】 간단하게 지진 예측 정밀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개인용 단기 지진 예측 앱인 『지진 서치』와 『지진 예측 플러스』가 있습니다(모두 유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M4.0 이상의 지진이 거의 실시간으로 예측 지역에 적중해도 적중하지 않아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4. 오로라 주식회사 대표 張 琦 氏 (<http://aurora-lab.co.jp/>)



【주소】 도쿄도 아라카와구 미나미센주 8-5-7 시라히게 니시 R&D 센터 217 호실 【설립】 2018년 3월 【자본금】 9,000 천엔

【사업 개요】 모바일 배터리 웨어링 서비스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상업시설과 대학을 중심으로 서비스 거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빌린 배터리는 어디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0 년도는 수도권에 모바일 배터리 스테이션을 1 만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기술을 활용하여, O2O 의 웨어링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업계의 대기업과 연계하여, 향후 모바일 라우터나 집 열쇠, 자동차 키의 웨어링 서비스를 취급하고자 합니다.

【코멘트】 이 회사는 도쿄 공대발(発) 벤처기업으로, 장 사장은 일본 IBM 과 퍼스트 리테일링, 라쿠텐을 거쳐 끊기지 않는 모바일 에너지를 목표로 창업하였다고 합니다. 모바일 배터리 시장은 2020년에는 864 억엔으로 확대 예측되고 있으며, 도쿄 올림픽까지는 설치 장소를 늘리고 싶기에 스피드감을 가지고 빠르게 사업 전개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감상평】 발표회 서두에 당법인의 고 부이사장님으로부터 지난 달 개최한 총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년 출범 20 주년을 맞이하여, 회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 매칭은 봉사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좀처럼 회비제라는 형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NP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